

석유 비축량 135일분으로 확대

정부, 2008년까지 26일분 확충 ... 고철·철광석 할당관세 0%

정부는 3월5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 비축량을 현재의 109일분에서 2008년까지 135일분으로, 해외개발을 통한 원유 조달비율을 2008년까지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원자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상반기부터 철광석, 고철, 동광석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1%에서 0%로 낮추고, 고급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철강제품을 증산하거나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8개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원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관련해서는 2004년보다 1000억원 정도 많은 3500억원을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비축 원자재를 시중가보다 3%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특히, 철강 공급확대를 위해 포스코가 2005년 직공급물량을 2004년 627만톤에서 763만톤으로 늘리고 수입대행과 인터넷 입찰을 통해 19만만톤과 20만톤을 확보키로 했으며, INI스틸 당진B지구를 2006년 8월부터 재가동해 열연, 냉연 각각 200만톤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광물의 해외자원 개발비율을 2013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모래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 공급원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북한 모래의 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5/03/08>